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4. 11. 20.(수) 11:00,
(지면) 2024. 11. 21.(목) 조간

배포 2024. 11. 20.(수) 06:00

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개편을 위한 연수회 개최

- 11.21(목)~22(금), 전국 10개 대학 교수와 수산질병관리사 등 참석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11월 21일(목)~22일(금) 이틀간 전남 여수에서 '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개편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'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워크숍은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위탁 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(원장 김민종)이 주관하며, 수산생명의학과(전공)를 두고 있는 전국 10개 대학 교수와 현직 수산질병관리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.

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의 진료, 수산생물 질병 예방을 담당하는 국가 전문자격으로 2004년 처음 도입됐다. 2024년 현재 약 1,300명(누적 기준)이 합격하여,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원하거나, 공직 또는 민간회사에 취업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.

최근 관상어 등 수생(水生) 반려동물 시장이 확대되고 수산용 백신 등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, 수산질병관리사의 역할 확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. 이에, 관련 분야 교수와 전문가들이 모여 현 시험체계를 점검하고 과목 개편 및 시험장 확대(현행 부산 1개소 → 부산 1개소, 중부권 1개소 추가) 등 시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당일 유튜브 현장 중계도 병행*할 계획이다.

* (현장 중계 주소) https://youtube.com/live/ZB_b4vQvmjo?feature=share

(브로밍 채널 주소) https://www.youtube.com/@broming_co/live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수산물질병관리사는 지난 20년간 양식 현장에서 백신 접종 등 질병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 양식산업 발전에 공헌했다.”라며, “이번 워크숍이 수산물질병관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, 수산물질병관리사가 앞으로도 어민과 함께하는 물고기 의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말했다.

총괄 부서	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승준 (044-200-5610)
		담당자	사무관	홍성현 (044-200-5625)
협조 부서	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	책임자	본부장	배석한 (051-620-5799)
		담당자	팀 장	박영숙 (051-620-5830)



□ 개요

- (목적) 수산물 진료에 필요한 수산생명의학과 수산생물의 양식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측정(수산생물질병 관리법* 제37조의5)

* 「기르는 어업 육성법」에서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('08.12 시행)으로 업무 이관

- (현황) '04년부터 시행*('24년까지 1,313명 합격)

- (응시자격)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(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학 학과)를 졸업하고 학사의 학위를 받은 사람(졸업예정자 포함)

*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시행규칙 제37조의6

□ 시험 운영

- (방식/주기) 위탁시행(시행기관: 한국해양수산연수원) / 연 1회

- (출제) 3개 영역(기초·임상·법규)에서 310문항 출제(객관식)

* 수산물기초의학(120문항), 수산물임상의학(170문항), 수산물질병관련 법규(20문항)

- (합격자 결정) 전 과목 60퍼센트,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자

- (면허발급) 시험합격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비서류*와 결격사유**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면허증 발급

* 졸업증명서, 건강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

**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37조의3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및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등